

안전기 설치로 가스사고 막는다

군산 수송동-도시가스, 취약계층 대상 무상 제공

가스 안전관리가 시급한 저소득 가구 88세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군산시 수송동(동장 정종신)·군산도시가스(대표 윤인식)의 '가스안전기 무상설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세대는 고령의 홀몸 노인세대나 중증장애인, 치매환자가 있는 가구로서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인지기능에 어려움이 있어 가스사용으로 인한 화재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이다.

가스안전기는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밸브를 잠가 가스를 차단해주는 장치로, 가스 사용자가 가스 불을 켜 놓고 깜빡 잊어버리거나 가스가 제대로 잠기지 않은 경우라도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수송동행정복지센터가 맞춤형복지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세대와 돌봄이 필요함에도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수송동과 이러한 취지를 공유한 군산도시가스는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하여 각 가정을 다니며 가스안전기를 설치해주고 가스안전 교육을 하는 등 무더운 날씨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군산도시가스의 한 관계자는 가스안전기 설치를 하면서 "우리 주변에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사고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지 솔



군산시 수송동과 군산도시가스가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하여 각 가정을 다니며 가스안전기를 설치해주고 있다.

직히 몰랐다"며, "가스안전기를 설치해드리는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어려운 분들의 안전을 지키고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뿌듯하다"고 전했다.

/군산=장현기

군산대 내의군 총장, 훈련장 방문 학군단 후보생 격려·간식 나눔

군산대학교 내의군 총장(사진)이 충북 괴산에서 하계입영 훈련 중인 학군단 후보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육군 학생군사학교를 방문했다.



내의군 총장 일행은 권역신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을 예방하고, 훈련생들을 만나 준비해간 간식을 나누며 환담했다.

올해 하계입영훈련에는 군산대학교 최준원(정보통신공학 3), 손홍준(해양공학 4) 등 3,4학년 재학생 59명이 참가 중이다. 1차 훈련은 지난 6월 26일 시작해서 7월 21일에 끝났고, 2차 훈련은 지난 7월 31일부터 시작해서 8월 25일까지 진행된다.

훈련 기간 동안 학생들은 분대전투, 독도법, 사격, 기본전투기술, 화생방, 수류탄, 구급법 등을 익히며 군사지도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내의군 총장은 "이번 입영 훈련을 통해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강인한 정신력과 자질을 배양하고 문무를 겸비한 호국간성으로서의 소양을 다지기 바란다"고 훈련생들을 격려했다.

내의군 총장은 2014년 취임 후 매년 동계 및 하계 훈련장을 방문하며 국토수호의 동량이 될 후보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군산=장현기

세계 관광객 이목 '익산시' 집중

9개국 외국인 대학생 방문 전통문화체험 실시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관광도시 원년 선포 이후 관광도시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익산의 문화 관광 자원 알리기에 나섰다. 시는 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문화언어체험프로그램(Korean Culture and Language Immersion Program, 이하 K-CLIP)' 참가자를 대상으로 익산의 대표 관광지인 천동사,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익산의 문화 관광 자원 알리기에 나섰다.

참가단은 미국, 우즈베키스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 외국인 대학생과 한국인 스태프 등 총 40여명으로 이뤄졌다. K-POP을 비롯한 한류 문화에 관심이 많고, 스마트폰 등 인터넷 매체 활용에 능숙한 20대 초반의 대학생들로 향후 SNS 등 온

라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익산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익산, 전주 등 국내 도시에 머물며 한국 문화·언어 체험 프로그램을 등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특히 익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석박물관, 교도소 세트장, 나바위 성당 등 대표 관광지 탐방과 더불어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방식 발효식품 향아리정원 '고소락'에서 전통장을 활용한 된장찌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해 지역과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는 후문이다.

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한발 앞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농협, 원광대병원 안 새둥지

환자·보호자 대상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

원광대학교병원은 환자, 보호자 및 고객들이 원내에서 편리하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농협 지점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원광대병원 본관 1층에 사무실을 개소한 익산농협 원광대병원 지점은 지난 7일 최우영 원광대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 개소식을 갖고 8일부터 정식 업무를 개시했다.

원광대병원이 자리한 익산시는 도농복합 도시여서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많은 점을 감안 한 이번 농협지점 유치로 농협 이용 내원환자들과 고객들이 원내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최우영 병원장은 "본원은 지역 내 병·의원들과의 상생 협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의료계 이외의 지역사회 발전에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분원에 농협지점 입점으로 환자, 고객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금융 관련 업무에 편리함을 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김병국 익산농협조합장은 "원광대병원 농협지점은 환자 및 고객들을 대상으로 차별화 된 금융 환경과 친숙하면서도 안전한 금융 거래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 목천포천에 어린붕어 3만마리 방류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8일 오전 자연생태계 복원과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목천포천에 붕어 치어 3만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사업은 외래어종의 유입으로 사라져가는 토산 어족 자원회복과 어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 자율관리어업공동체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은 이날 전라북도 수산

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험장에서 인공 부화한 크기 4cm 내외인 붕어 치어를 방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류는 생태계 회복과 수산자원증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류된 치어가 불법 포획되지 않도록 보전역시 확산에 힘쓰겠다"고 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정부 농업정책 접목... 농업인 행복 추진"

익산시 명예농업시장에 정명채 박사 위촉, 미래농정 실현 각오 밝혀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8일 제2대 익산시 명예농업시장으로 한국농어촌복지포럼 대표인 정명채 박사를 위촉했다.

이날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정현율 시장은 정명채 박사에게 명예농업시장 위촉장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제1대 리승용 명예농업시장이 지난 7월 농촌진흥청장으로 임명되면서 명예농업시장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정현율 익산시장은 휴가를 반납하

면서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삼고초려(三顧草廬)해 정명채 박사를 제2대 명예농업시장으로 위촉하게 됐다.

제2대 정명채 명예농업시장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을 역임했으며, 새 정부 농정공약 발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농업인에게 높은 인지도와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위촉식에서 정명채 명예농업시장은

"익산시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새 정부의 농업정책을 익산시 농업에 접목해 농업을 통한 익산시 발전과 농업인의 행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굳은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익산시는 미래농정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현장포럼, 농업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명예농업시장제를 운영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ARS 1577-8170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